

유엔 인권 전문가, 미 국적자 세 명 석방한 북측 결정 인권 문제 해결을 향한 환영할만한 조치

제네바 (2018 년 5 월 10 일) – 유엔 인권 전문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미 국적자 세 명을 석방한 것을 환영하며 “남북 양측 뿐 아니라 한반도를 넘어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는 “외국인 구금자가 자의적 구금 상태에서 기본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고, 이에 지속적으로 석방을 촉구해왔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석방 결정을 환영하며 향후 인권 및 인도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몇 년 사이 김학송, 김상덕 (“토니 김”), 김동철을 비롯한 복수의 외국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체포됐다.

특별보고관은 아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구금된 목사 세 명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적자 여섯 명도 조속히 석방하길 촉구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구금된 외국인이 적법 절차를 밟지 못하고, 영사 접근 없이 비인도적인 환경에 구금됐을 수 있다는 보고에 우려한다”며 “더하여 평화를 위한 대화가 진전된다면, 북측 내 전반적인 교정 제도 점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더했다.

특별보고관은 7 월 첫 주에 대한민국 방문 예정으로, 2018 년 10 월 유엔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끝.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아르헨티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으로 2016 년 유엔 인권이사회 임명을 받았다. 인권 분야에서 20 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변호사로 미주인권위원회 변호사로 근무했으며,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 시절 아동 납치 문제를 다룬 비정부기구 마요 광장의 어머니들 (Abuelas de Plaza de Mayo) 대표로도 활동했다. 볼리비아 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 프로그램을 총괄한 바 있으며, 2008 년부터 2014 년까지 미얀마 내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직을 역임했다.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제도](#)로, 특별절차는 유엔 인권 제도 하에서 가장 많은 수의 독립전문가가 참여한다. 특별절차는 특정국가 인권 또는 전세계에 적용하는 특정 인권 주제를 다루기 위해 인권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특별절차 전문가는 유엔 직원 신분이 아니고 무보수로 자발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여타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개인 역량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유엔 인권 국가별 웹사이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서울유엔인권사무소 웹사이트

추가 정보 및 언론사 문의는 아래를 참조해주시요.

-서울: Signe Poulsen (+82 2 725 3521 / spoulsen@ohchr.org)

-제네바: Olga Nakajo (+41 79 444 5515 / onakajo@ohchr.org)

기타 유엔 독립전문가 관련 언론사 문의는 아래 담당자로 문의해 주십시오.

Jeremy Laurence (+ 41 22 917 9383 / jlaurence@ohchr.org)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채택 70 주년의 해입니다. 1948 년 12 월 10 일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역사상 가장 많은 언어인 500 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는 원칙에 근거를 두고 전세계인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70 주년을 맞이하여 세계인권선언의 위대함과 영향력을 재차 상기하고 세계인권선언의 근간이 되는 원칙이 퇴색하지 않도록 전세계인이 인권 옹호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Stand Up for Human Rights: www.standup4humanrights.org